

여름
여름
여름

A J U B I A N N U A L M A G A Z I N E
2019 SUMMER • VOLUME 53

cover artist

Nam Yeo Joo

남여주



남여주 작가는 나뭇잎, 꽃잎, 새, 물고기 등이 물에 반사된 몽환적인 이미지를 캔버스에 표현해 낸다. 작가는 'Reflective반영'라는 일관된 주제를 견지하면서 물을 통해 세계를 보고, 물의 세계에서 상생하는 생명과 자연을 그린다. 작품 속 사물들은 상하좌우의 구분 없이 부드러운 색채로 중첩되어 있다. 생명체를 포용하고, 흘려보내며, 달항아리 같은 그릇 속에 담기면 자신을 녹여내는 물은 사물과 무질서한 듯 질서롭게, 이질적이면서도 친숙하게 존재한다. 서양의 조형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고아한 동양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남여주의 작품은 갈등과 충돌을 빚는 세상의 수많은 요소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풍경을 빚어 낸다.

AJU
아주





Reflective 18037, Acrylic, Resin, Bead on Canvas, 91x72.7cm, 2018



Reflective 18056, Acrylic, Resin on Canvas, 91x116.8cm, 2018

물을 통해 보는 자연과 마음, <Reflective>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며 자연스레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고 포용해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싶다는 남여주 작가. 그는 물에 투영된 경험적 자연과 불특정하게 감각된 마음의 풍경을 그린다. 색을 부드럽게 중첩하는 방식으로 바탕 작업을 하고, 레진과 비즈로 마무리해 반짝이는 수면의 움직임을 극대화했다. 그것은 다양한 모습의 인간을 상징한다. 여러 세계와 존재를 포용하고 있는 듯한 기법은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며, 경계를 허물고 화면 위를 부유하는 자연물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앞표지. Reflective 16034, Acrylic, Resin, Bead on Canvas, 60.6x60.6cm, 2016
뒷표지. Reflective 15022, Acrylic, Resin, Bead on Canvas, 45.5x45.5cm, 2015

함께 만들어 내는 기쁨의 순간들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값지고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입니다. 사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가는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입니다. 그것이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는 행위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합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모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순간은 다른 어떤 순간보다 값집니다. 이번 「아주좋은날」에서는 함께 만드는 다양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아주좋은날」을 통해 함께 빚어 낸 기쁨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ONTENTS

Section 1. Art & Life	gallery 함께 만들어 내는 기쁨의 순간들	02
	opinion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	10
	insight 민족 음악의 미래를 밝히다	12
	people 경청·倾聽 마음과 마음에 통로를 마련하는 귀 기울임의 기적, 아나운서 한석준	16
	curation 1 더위를 식히는 지혜이자 화려한 공예품, 합죽선	20
Section 2. Now & Moment	culture and the city 십리대숲 바람이 분다, 울산 중구	22
	special free time 시원하게 풍덩, 프리다이빙	28
	favorite things 진실한 소리로의 끝없는 여정, 대명창 안숙선의 여가식미餘暇食美	32
	scene of object 도시의 어둠을 가르는 질주 본능, <다크 나이트 라이즈> 캣우먼의 배트포드	36
	curation 2 과학이 만든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38
Section 3. Aju & Style	aju story 국내 최초를 넘어 글로벌 최고를 꿈꾼다, 아주IB투자	40
	aju spirit 기존의 혁신을 혁신하라, AJU Fundamental Course	44
	aju news 아주 소식을 전합니다	48
	reader's view 독자 후기와 아주의 선물	52

with music



Astor Piazzolla - The Soul of Tango : Greatest Hits
WARNER MUSIC, CD, 2003

Adios Nonino - Astor Piazzolla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가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방황하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선물한 탱고 악기인 반도네온을 통해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Adios Nonino>는 1959년 피아졸라가 아버지 노니노nonino의 부고를 듣고 그를 추억하며 쓴 곡입니다. 우리에게는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울려 퍼진 피겨 선수 김연아의 마지막 올림픽 경기 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춤곡이었던 탱고를 연주곡 이자 세계인의 음악으로 끌어올린 피아졸라의 이야기는 ‘insight’, <민족 음악의 미래를 밝히다> 칼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Adios Nonino
Performed by Astor Piazzolla and His Group
in Montreal Jazz Festival, 1984

Art & Life

“위대한 일들은 작은 일들로 이뤄진다.”

빈센트 반고흐

예술, 더 가까이

우리는 예술을 혼자하는 것, 창작자의 고독한 작업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혼자서 세상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창조는 혼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난감 회사 레고는 한 솜씨 좋은 목수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지금껏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의 창조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국립 박물관을 설계한 장 누벨은 뛰어난 건축가이지만, 협업자들의 창의력이 없었다면 그의 도면은 세상에 구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더 이상 독보적인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ROOT BENCH

한강과 도시, 자연과 사람의 연결, 뿌리벤치

서울 용산구 한강예술공원에 지름 30m의 거대한 벤치 군락이 등장했다. 나무 뿌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이 공공 의자의 이름은 '뿌리벤치'. 초록의 넓은 잔디밭에 방사형으로 뿌리내린 조형물은 서울의 인공적인 빌딩과 대조를 이루며 경쾌한 시각적 자극을 준다.

hangangartpark.kr



커다랗고 커다란 나무의 뿌리가 흙을 뚫고 나와 사방에 뻗어 있다면 어떨까? 사람 몸통만큼 굵은 뿌리 위를 걷거나 그 곳에 누워 하늘을 보고 바람도 맞을 수 있다면.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서울 용산구 한강예술공원에 거대하고 역동적인 나무 뿌리가 퍼져 있는 듯한 형태의 벤치가 주인공이다. 이 공공 의자의 이름은 '뿌리벤치'. 2017년 서울시가 한강에 새로운 문화 공간을 조성하면서 개최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실제로 구현했다. 조형물의 콘셉트는 중심에서 시작된 형태와 그에 따른 공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중심부에서 뻗은

뿌리들은 굽이치고 높낮이를 바꾸며 사람들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구불구불한 모양을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디자인했는데, 반복되는 형태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조형물이지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했으며 아이용 의자(250mm), 어른용 의자(450mm), 테이블(750mm)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적당한 위치에 배치했다. 뿌리벤치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이자 예술성이 돋보이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한강예술공원에 새로운 자극과 즐거움을 준다.



©Iwan Baan

NATIONAL MUSEUM OF QATAR

사막에 핀 장미, 카타르 국립 박물관

건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인간의 생활도 어느 정도 정형화된 이유로 건축 디자인의 독창성 또한 한계에 다다른 줄 알았다. 카타르 도하에 개관한 국립 박물관은 건축과 공간에 대해 다른 차원의 대답을 내놓은 듯하다.

qm.org.qa



아라비아해의 파도와 해안선이 넘실대는 카타르 도하의 중심지 코트니로드. 이 생동감 넘치는 풍경의 끝에는 기하학적 무늬의 원반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건축계의 스타' 장 누벨이 사막 장미Sand Rose를 모티프로 설계한 카타르 국립 박물관이다. 사막 장미는 실제 장미는 아니다. 사막 깊숙한 곳에서 모래가 태양 열과 지열에 노출되어 장미 모양으로 굳어진 결정이다. 사막 장미는 아름다우나 중동에서도 귀하다. 자연이 만든 이 진귀한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316개의 디스크(원반)을 불규칙하게 서로 맞물렸다. 건물을 지탱하는 역

할을 하는 둑근 판에는 육중한 철골 프레임을 숨겼고 칼날처럼 예리한 판의 끝부분은 외부의 강한 힘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뼈대로 연결했다. 한 조각에 180kg에 육박하는 패널 하나를 완성하는 데에 처음에는 4개 월이 걸렸다.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이 역동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정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실내 또한 우연한 만남처럼 면과 면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 바닥, 벽, 천장의 구분이 모호하다. 독특한 설계 때문에 공사 기간이 10여 년이나 걸렸지만 카타르 왕실의 의지처럼 카타르 국립 박물관은 역사에 남을 건축물로 완성되었다.



©airbnb·레고®하우스에서 보내는 잊지 못할 하룻밤

LEGO HOUSE

레고의 모든 것, 레고 하우스

전 세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장난감이기도 한 레고. 레고의 고향인 덴마크 빌룬에 2500만 개가 넘는 레고 브릭으로 지은 집, 레고하우스가 있다. 컴퓨터 게임이 등장하고 시대도 변하지만 레고는 그림에도 변하지 않는 세계를 가꾸며 지금도 미래를 상상한다.

legohouse.com



레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레고의 고향, 덴마크 빌룬Billund을 빼놓을 수 없다. 레고는 1932년 빌룬의 목수었던 올레 크리스티안센이 아이들을 위해 나무 장난감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플라스틱이 발명되자 나무 재료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 작은 플라스틱 브릭Brick으로 만드는 무한의 공간을 상상하며 지금의 'LEGO'가 되었다. 레고의 마을인 빌룬에 지은 레고 하우스는 'Home of the Brick(브릭의 집)'으로 불린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의 브릭을 겹겹히 쌓아 올린 것 같은 외관은 레고의 정체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창의력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내부의 레드존에서는 무엇

이든 만들 수 있는 레고의 세계를 상상해 보고 블루존에서는 건축가처럼 도시를 건설하거나 과학자처럼 로봇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옐로존에서는 생명을 얻은 듯 춤추는 생물이나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들고, 그린존에서는 미니 피겨가 사는 세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상상해 본다. 식당의 컨베이어벨트부터 서빙하는 로봇, 폭포와 거대한 나무, 공룡, 자동차 등 모든 것을 레고로 만들었다. 흔히 빌명의 공간으로 여기는 지하실에는 레고의 상징과도 같은 마스터피스가 가득하고, 레고 하우스 꼭대기 전시장에는 전 세계 레고 팬이 만든 팬 아트를 전시해 놓았다.



© 서현강

ROYAL CULTURE FESTIVAL

여전히 아름다운 우리 삶의 일부, 궁중문화축전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를 걷다 보면 도시의 모든 것이 현대의 산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첨단의 도시 한가운데에는 굴곡진 역사의 부침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옛 공간들이 남아 있어 한 번씩 이 도시를 되돌아보게 한다.

royalculturefestival.org



©한국문화재재단-제6회 궁중문화축전 종묘제례악 야간공연

서울 도심에는 조선의 5대 궁궐과 종묘가 남아 있다. 당연한 사실 같지만, 5대 궁궐을 얼마나 가 보았는지, 이곳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전통은 보존해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만큼이나 생활 속에서 향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조선의 궁궐은 여러 번 부침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곳이다. 궁중문화축전은 조선의 건국 이념이 담긴 법궁인 경복궁, 가장 오래되고 임금이 사랑했다고 하는 창덕궁,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덕수궁, 경사스러운 일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경희궁, 그리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당인 종묘를 배경으로 한다. 고궁이 그저 오래되고 아름답기만 한 옛집이 아니라 서 있는 자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걸어 놓은 현판과 주변, 꽃을 심은 화단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의미가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궁중문화축전에서는 평소 접하기 힘든 궁궐의 야경과 밤에 펼쳐지는 종묘제례악 공연을 보고, 무관시 험을 체험하며, 궁중 여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도 있다. 낯설게 느껴졌던 공간들을 천천히 거닐다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비롯되었는지를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와 인류의 미래

인류 문명은 인간 지성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 같지만, 지구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좋은 기후 조건을 만난 우연의 산물이었다. 인간은 특정한 기후 조건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이 '완전한 시대'를 우리 스스로 끝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글 조천호

기후변화 현실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 간의 정의를 구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부유한 국가는 잘살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다. 아저 기온이 상승해 왔다. 과거 빙하기에서 간 반면 가난한 국가는 배출 책임은 덜하지만 기후 위험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더 높다. 이와 같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 국가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예방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현재 76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자원, 에너지, 식량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지구 1.7개에 달한다. 우리가 은행라면 이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원금을 까먹으며 살고 있다. 지구라는 '큰 행성'에서 인류가 이룬 '작은 탄성력을 보존하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더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구 스스로 파국을 향해 간다. 그러므로 미세먼지가 마치 서울 뒷골목 폭력배의 위험 수준이라면, 기후변화는 서울 한복판에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 폭력배의 위험은 경찰이 관리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의 위험은 관리나 통제가 불가하다. 기록이 한 번 깨지면 우연이다. 다시 깨지면 우연의 반복이다. 세 번째 깨지면 추세가 된다. 매번 깨지면 변화가 된다. 기후변화는 명백하게 되었다. 비정상이라고 간주했던 극한 날씨가 이제 우연이 아니라 정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지구는 인간이 가하는 온실가스라는 충격을 받아 극한 날씨로 되돌려 준다.

오늘날 위험은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세계처럼 살아서 생긴 일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때문에 엄청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과거 위험은 홍수, 가뭄, 지진, 화산, 전염병처럼 자연에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것이었다. 이는 방재 기술이나 보건 위생 시설이 미흡해 생겼다. 선진사회에서는 그러한 결핍을 채움으로써 위험을 해결해 왔다. 반면에 기후변화, 환경오염, 오존층 파괴, 생태계 파괴, 오염먼지와 같은 현대의 위험은 과거의 결핍을 메웠던 산업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위험이다.

결국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찰하게 한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



'세상'은 몇십 년 전까지 별 탈 없이 유지되었다. 2°C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빙하기와 간빙기 하지만 인류는 지난 1만 년 동안 500세대에 걸간의 기온 차이에 비한다면 큰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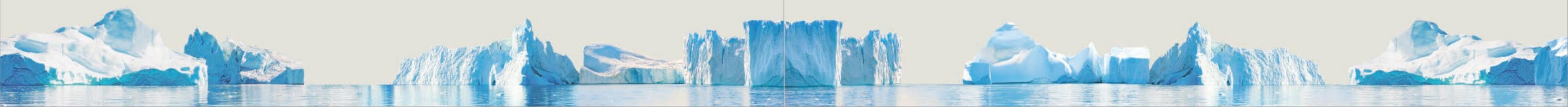
대부분 오염먼지는 배출이 된 후 일주일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그러므로 오염먼지는 시공간적으로 영향력이 제한되며 주로 건강에

만 문제를 일으킨다. 런던 스모그나 로스엔젤레스 스모그 사례처럼 강력한 오염 규제법을 만들어 집행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문명을 지탱해 왔던 안정된 기후를 붕괴시킬 정도로 위협이 된다. 특히 공기 중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까지 지속되어 그 효과가 누적되고 영향이 지구 전체로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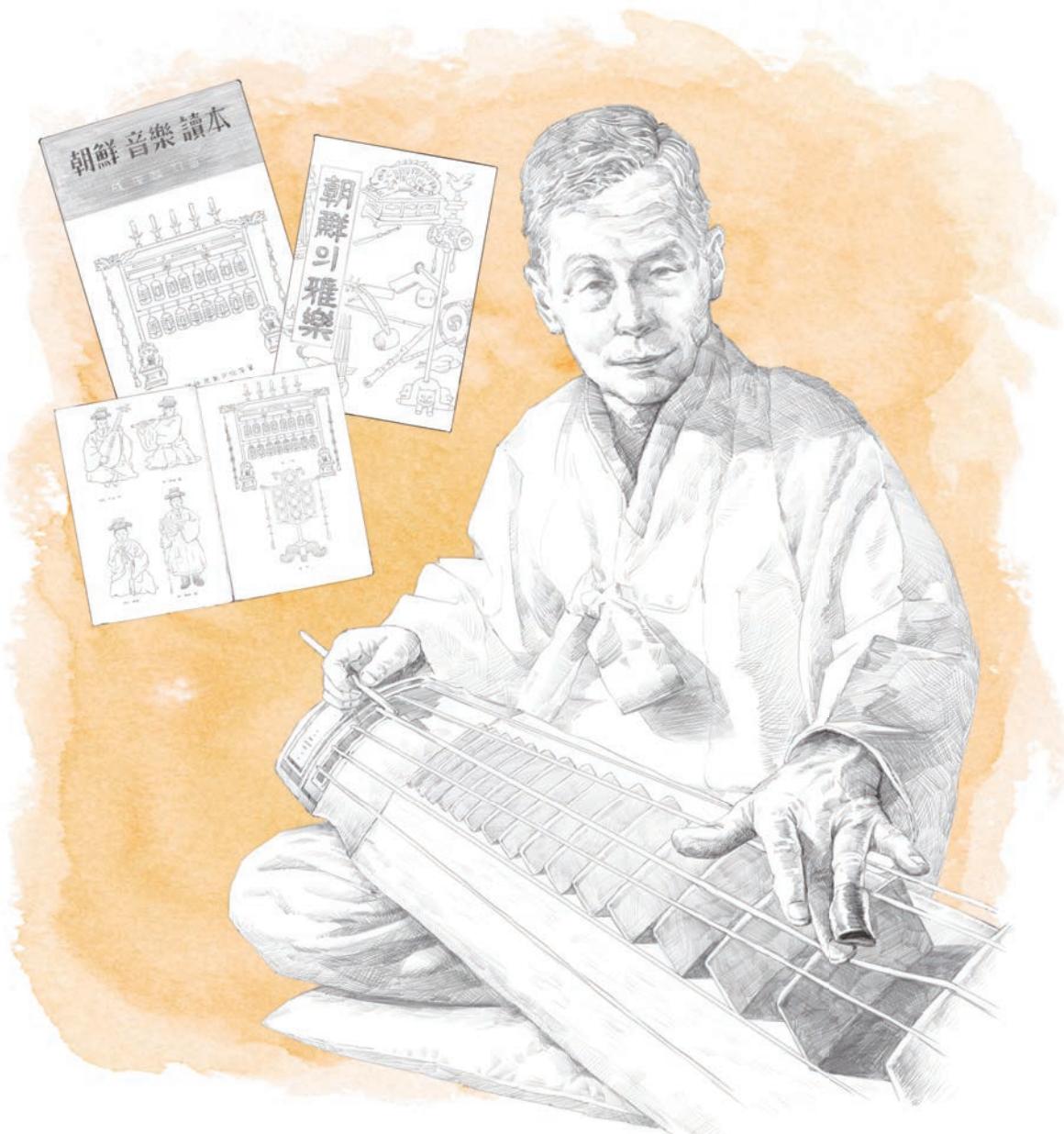
기후변화의 임계 수준을 넘어가면 인류가

기후변화 대응은 '적응'과 '저감'을 통해 수행된다. '적응'은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줄인다. '저감'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기후변화 저감은 세대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이다. 우리 세대가 잘살기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 남아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이익은 없고 피해만을 감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위험을 일으킨 원인 유발자와 그 위험을 극복해야만 하는 처리자가 동시대인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그러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저감 대책의 핵심이다.

는다는 것은 인류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이 주체적으로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전적으로 바로 지금 우리 능력 안에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는 과학인 동시에 신념의 문제다. 신념이 기후변화를 가치의 틀 안에 통합시키고 행동에 나서도록 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현재 세계는 과거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미래 세계 역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축적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라고 자문해야 한다.



민족 음악의 미래를 밝히다



조선 궁정음악을 지켜 낸 국악인,
성경린

일본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이듬해에 태어난 성경린(1911~2008)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가 들지 않는 곳을 찾다 국악의 길로 들어섰다. 생계를 위해 시작했지만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조선의 궁정 음악을 계승하는 ‘이왕직아악부’의 악아수장에 올랐으며 세종 이래로 이어져 내려온 궁중음악과 무용, 석 전제 음악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었다. 2008년 아흔여덟의 나이로 영면할 때까지 80여 년간 국악을 지키고 보급하는 데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는 일제강점기로 인해 잊힐 뻔한 국악의 미래를 일구어 냈다.

K-POP이 세계를 누비고, 우리나라 젊은 음악가들이 콩쿠르를 석권하는 요즘, 짐짓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세계에 울려 퍼지는 아이돌 음악에, 세계인의 귀를 훑리는 음악가들의 연주에 우리의 음악을 실어 보면 어떨까? 여기에 귀감이 될 두 사람이 있다. 우리의 음악을 계승하는 데 일생을 바친 성경린, 남미의 골목 음악이었던 탱고를 세계인이 사랑하게 만든 아스토르 피아졸라다.

글 송주호 일러스트 강태이



아르헨티나 탱고의 뉴웨이브를 연 음악가,
아스토르 피아졸라

골목 음악이자 춤곡이었던 탱고를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하는 연주 음악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알려진 아스토르 피아졸라(1921~1992). 그는 처음에는 탱고도, 탱고 악기인 반도네온도 좋아하지 않았다. 클래식 을 동경해 파리 유학 당시에는 탱고를 연주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인정하고 탱고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의 전통 음악이었던 탱고를 클래식, 재즈와 결합해 새로운 개념의 탱고, ‘누에보 탱고Nuevo Tango’를 창안했다.

좌절하지 않는 삶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 가야 했던 성경린은 열여섯 살이던 1926년에 친척의 권유로 응시한 '이왕직아악부양성소'에 합격했다. '이왕직아악부'는 조선의 아악과 무용을 맡았던 '장악원掌樂院'을 이은 기관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제국 황족의 의전과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이왕직李王職'의 부속기관이 되었는데, 전통 아악을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매월 수당까지 지급하는 등 대우가 매우 좋았다.

양성소에서 거문고를 전공한 성경린은 학업에 혼신의 노력을 했다.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을까? 남다른 사명감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졸업 성적에 따라 정해지는 월급 때문이었다고 한다. 수석 졸업자는 30원, 그다음은 27원, 그다음은 25원……. 그의 목표는 오직 '30원'이었다. 생계가 삶의 모든 것이었던 시절, 30원은 모두의 목표였다. 1931년 국립국악원이 개원하면서 성경린은 악사

결국 아악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7년 후에는 아악부의 수장이 되었다.

모든 힘을 우리 음악에

해방 이후 아악부는 시대에 맞는 대우를 받았어야 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공연 기회를 갖기는커녕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예술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많은 악사가 생계를 위해 아악부를 떠났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 악사의 길을 시작했던 성경린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악을 지키고자 동료들과 함께 출근해 사무실을 운영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아악부를 국립으로 전환할 것을 청원했고, 1951년 4월, 한국전쟁 중에도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이 문을 열도록 노력을 다했다. 또한 4년 후에는 종고등학교에 해당하는 6년 과정의 국악사 양성소를 만들었다. 이 기관은 1972년에 국악고등학교가 된다.

초대 국악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국악 교육에 열정을 쏟으며 아흔이 넘은 고령에도 대학에 출강하고 후학을 지도했다. 방송도 중요한 활동이었다. 1946년 3월부터 경성방송국에 해설가로 출연해 주목을 받았는데, 육당 최남선의 방송을 듣고 연습했다고 한다. 그의 방송 활동은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성경린은 다양한 능력을 국악에 쓸어부으며 시대를 풍미하고 세기를 대표하는 국악인이 되었다. 그를 통해 현대국악의 토대가 다져졌으며, 이는 높은 존재감으로 계승되고 있다.

“악보에 의존하지는 않았어. 우리 공부는 그런 거예요. ‘악보’는 나중에 참고하는 거지, 기대는 건 아니었다고.”



“정지한 모든 물체는 사라지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난 언제나 변화하려고 노력했고 변화를 후회하지 않는다.”

**우연히 만나게 된 음악, 탱고**

아스토르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 태생이지만, 그의 가정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뉴욕으로 이주했다. 어린 시절 그는 간단에 들어가 강도질을 일삼는 불량 청소년으로 자랐다. 보다 못한 그의 아버지는 탱고 악기인 반도네온을 연습시켰다. 피아졸라는 탱고도, 반도네온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엄하게 연습시켰고 재능이 있던 피아졸라는 열세 살 때 전설적인 탱고 가수 카를로스 가르델의 세션 멤버가 되면서 음악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1939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해 카바레와 댄스홀에서 연주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악은 클래식이었다.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 자작곡 '피아노 독주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아르헨티나 음악가이자 20세기 최고의 현대음악 작곡가로 꼽히는 알베르토 히나스테라에게 배우며 여러 가지 관현악곡과 실내악곡을 작곡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1953년에 파비앙 세비초키 작곡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졸라는 1년간 파리에서 음악 교육의 거장 나디아 불랑제의 지도를 받게 된다. 불랑제는 피아졸라에게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해 꼼꼼히 물어보았다. 피아졸라는 카바레에서 탱고를 연주하던 과거를 숨기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탱고곡 '승리'를 연주했다. "여기에 진짜 피아졸라가 있었군!" 불랑제는 피아졸라에게 자국의 문화 속에서 풍요로운 악상을 찾으라고 조언했고, 피아졸라는 탱고 음악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다.

그는 '듣는 탱고'로 탱고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는 각오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다. 에런 코풀랜드와 이고르 마르케비치와 같은 음악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그의 열성팬이 되었지만, 그의 음악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다. 그러나 피아졸라는 '누에보 탱고Nuevo Tango'라는 기치를 내걸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오중주단을 결성해 독특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창작력은 최

고조로 올랐고 그의 음악이 유럽, 북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개척정신과 공존의 미학

'누에보 탱고'는 탱고에 재즈의 표현력과 클래식의 형식미를 더했다. 당김음과 엇박자로 일으키는 긴장감, 리듬, 스윙, 불협화음과 즉흥연주 등에서는 재즈가 보인다. 대위법과 템포, 음향에서는 고전과 현대음악의 영향이 넘쳐 난다. 그하면서도 처절한 슬픔과 앙상미가 극명하게 대조하는 탱고 본연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탱고의 파괴자일까, 계승자일까? 분명한 것은 피아졸라가 전통과 개성, 그리고 세계가 음악을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는 사실이다.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서울시향' 콘미공(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진행자,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자문위원, '현대음악양상을 소리' 프로그램, '드림싱어즈'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청傾聽
마음과 마음에
통로를 마련하는
귀 기울임의 기적

아나운서 한석준



한 아이의 아버지, 한 회사의 리더, 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전문 직업인. 이 세 역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 아이의, 여러 구성원의, 시대의 요구에 늘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그들과 더불어 의미 있는 행보를 만들어 간다는 점 아닐까? 경청은 자신의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의미다. 말하기보다 주로 들으며 수많은 이와 진심의 통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두 사람. 한석준 아나운서와 아주오토리움 문정휴 본부장의 대화에는 경청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다.

글 유재원 사진 김민정 장소 협찬 이유진갤러리

얼마 전 딸 사빈 양과 지내는 일상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할 일이 많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말로 표현한 적 있으시죠? 저도 30대 후반에 딸을 낳아 늦깎이 아빠가 된 사람인데 아나운서님의 글을 보니 처음 아빠가 되었을 때의 심정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치열한 고3 생활을 보내고 있는 딸아이 방을 몰래 그리고 오래 들여다보다 나왔습니다. 요즘도 여전히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래저래 정말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이가 생기니 뭐가 좋으냐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다 좋아요. 눈, 코, 입, 작은 움직임이 다 예쁘고 신기하고 숨 소리, 입 냄새까지 정말 다 사랑스러워요. 따님 방을 오래 바라보다 나왔다고 하셨는데, 저도 늘 말 없이 아이를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 이 아직 사빈이는 말을 못 하니까 모든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고, 저는 그 반응에 맞춰 다시 행동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는 육아가 아이의 반응을 오롯이 경청해야만 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대화한다’, ‘소통한다’는 의미로 완성되려면 그에 앞서 상대를 100%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방금 말씀하신 경청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아에서도 소통의 의미를 발견하시다니, 과연 누구보다 앞서 유튜브까지 섭렵한 아나운서다우시네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한석준 TV>를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죠?

100%의 이해라니, 너무 멋지고 어려운 말이네요.(웃음) 정말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 공감과 이해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석준 TV>를 시작할 때에는 매체 환경이 유튜브로 바뀐 만큼 이에 따른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보아야 했어요. “나는 무엇인가?” 결국 저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어떤 환경에서든 가장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왕 유튜브의 시대를 피할 수 없다면 여기에 걸맞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자, 이 매체에 적응해 시청자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 보자. 그러기 위해선 유튜브 크리에이터





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어렵거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당시 제 삶의 가장 큰 화두였던 육아를 소재로 유튜브 콘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저는 무언가를 검색하려면 검색 엔진을 켜는 게 당연한 사람인데 제 딸이나 회사의 젊은 후배들은 모두 유튜브에서 검색해 동영상 콘텐츠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왜 모두가 유튜브에 열광할까요?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는 유튜브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나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한 무한한 확장성을 지닌 플랫폼이라는 점이에요. 유튜브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만 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지요. 그렇기에 당연히, 누구나 가볍게 볼 수 있는 쉽고 재밌는 콘텐츠는 물론 양질의 콘텐츠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약간의 진입 장벽만 넘으면 누구나 그 플랫폼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내 취향에 딱 맞는 것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은 환경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좋은 안목으로 큐레이션하고 정성 들여 편집하면 가벼운 퀄링 타임용부터 한 권의 도서 못지않은 밀도를 지닌 복직한 콘텐츠까지 무궁무진한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십니다. 혹시 그런 특징을 활용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크고 작은 일을 실행하는 중입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중계'라는 코너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재밌게 본 유튜브를 소개하는 콘텐츠인데 처음 유튜브를 접하는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좀 더 본격적으로는 출판, 인쇄 콘텐츠와 유튜브 콘텐츠를 융합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그렇죠. 리더는 정말 '일단 듣는다'는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제 머리에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빛나는 원석 같은 아이디어를 한발 뒤에서 지지하고 나의 노하우를 접목해 보석으로 갈고 닦아 주는 게 리더의 힘이고 경청의 미덕인 것 같아요.

인터뷰 시작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란 결국 100%의 이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자기 의견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스스로의 비전을 의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시 대화를 통해 모두의 비전으로 수렴해 가는 게 리더의 힘이고요.

그렇죠. 수많은 유튜브 채널을 경청해 '유튜브 중계' 코너를 기획했듯, 직원들의 마음 또한 살피다 보면 분명 새로운 방향성이 생겨날 거예요.

격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경청은 기울일 '경傾' 그리고 들을 '청聽' 자

를 쓰잖아요.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 그 말을 듣는다는 의미지요. 타인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고 일단 수용하고자 할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기적.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라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회사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진심이겠죠.

「**아주좋은날**」 독자 여러분께도 우리의 진심이 전달된다면 좋을 텐데요.(웃음) 마지막으로 다정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이 매체, 글을 읽는다는 게 결국 100%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행위잖아요. 저희의 고민 그리고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무더운 여름, 가끔 시원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정화를 누리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오늘의 이 진지한 소통과 따뜻한 온기의 시간을 한동안 잊지 못할 겁니다.

“
타인을 일단 수용하고자 할 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기적.
그것이 진정한 소통 아닐까요?
”





curation 1
여름의 물건

Now & Moment

“때때로 손에서 일을 놓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잠시 일에서 벗어나 거리를 두고 보면 자기 삶의 조화로운 균형이 어떻게 깨져 있는지 분명히 보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일상, 더 천천히

여름입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한여름의 열기는 최고 온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피서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의미이지만 사실 무더운 여름을 나기 가장 좋은 곳은 선선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집이나 사무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어컨 바람은 체온은 낮춰 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나 영감을 주지 못합니다. 울산의 십리대숲에서는 서늘한 그늘에서 땀을 식히기 안성맞춤일 뿐 아니라 4km에 걸친 대숲의 바스락거리는 바람 소리를 하염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소통 없이 바다를 잠영하는 프리다이빙을 상상해 보았나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바닷속의 고요함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름, 매일 마주하는 공간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경험 속에 나를 던져 보는 건 어떨까요.

선조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뭇잎, 새의 깃털로 부채를 만들었다. 이 어교漁膠로 살을 붙이는 과정이 까다로운 데다 나전, 금속, 철, 옥공에 후 삼베나 모시, 명주 등 천을 재료로 쓰다가 한지가 발명되면서 현재의 등으로 치장한 것이 나오면서 왕족과 귀족, 사대부만이 사용하는 최고급 부채 형태가 되었다. 고려 때부터 접었다 펴다 할 수 있는 '접부채'를 사 공예품이 되었다. 조선 때는 양반들의 부채를 통한 자기 과시가 지나쳐 용했고, 합죽선合竹扇 또한 이때 등장했다. 합죽선이란 얇은 대나무 걸 대밭이 황폐해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선자장이라고 불리는 부채를 대와 걸대를 붙여 살을 만들고 한지를 바른 부채를 말한다. 민어부레풀 만드는 무형문화재가 합죽선을 하나 완성하는데 약 100일이 소요된다.

십리대숲
바람이 분다, 울산 중구

울산이라 하면 많은 사람이 조선소와 자동차 산업을 떠올리지만,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곳은 산과 강, 바다를 품은 생태도시였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근대화, 산업화라는 이야기를 입은 울산은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도시이자 작가들의 이야기 터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며 주목받고 있는 울산 중구의 보물 같은 장소로 떠나 본다.

글 이하람(여행작가) 사진 울산 중구청



높은 바위 위에 우뚝 솟은 태화루, 단청 모서리는 푸른 물에 넘어질 듯
크고 작은 나무들은 바위를 둘러싸고 간간이 대나무 숲은 처마 끝에 춤추네



더위와 시름을 날려 보내는 바람

태화강 변의 대나무숲에 대해 조선 중기 문인 이제신 (1536~1583)은 위의 글처럼 묘사했다. 태화루에 앉아 강변의 일몰을 보고 있노라면, 6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의 정취와 낭만은 멈춰 있는 듯하다. 태화강 상류 4.3km에 달하는 십리대숲은 울산 태화강의 상징이다. 태화강 변에 대나무가 처음 심어진 시기와 연유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조선 시대 시조는 분명 태화강의 대나무숲을 노래하고 있다. ‘십리대숲’이라는 명칭 역시 인공적으로 조성된 ‘밭’이 아닌 자연적으로 생긴 ‘숲’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십리대숲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음이온을 만끽하며 산책로를 따라 걸어도 좋다. 대숲이 내뿜는 피톤 치드는 놀라운 살균력을 지니고 있다. 태화강지방정원의 십리대숲은 계절마다 색을 갈아입고 꽃 향연을 벌인다. 양귀비, 안개초, 작약 등 10여 종의 꽃이 16만m²의 초화단지를 가득 메우며 오색찬란한 색을 뽐낸다. 지난 봄 6,000만 꽃송이를 피웠던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을 국화축제를 기다리고 있다.

울산은 바다가 있는 도시지만, 울산 시민들은 한여름 피서지로 바닷가보다 태화강의 십리대숲을 꼽는다. 대나무숲에서 부는 바람은 한여름 더위를 잊게 하고, 밤이 되면 대숲 하늘에 별을 걸어 놓은 듯한 은하수길이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십리대숲 은하수길은 이미 울산 일대에서는 데이트 코스로 알려져 연인들의 사랑

을 받고 있다. 별처럼 연출하기 위해 하늘 높이 뻗은 댓잎에 촘촘히 설치해 놓은 LED 조명이 바람결에 움직이는 댓잎을 따라 은하수처럼 넘실거린다.

다시 울산의 상징이 된 태화강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말처럼 그동안 태화강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공업화와 산업화로 인해 한때는 ‘죽은 강’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20여 년에 걸친 생태복원사업으로 되살아났다. 태화강에서 수영 대회가 열렸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 모두 가슴을 활짝 열고 강바람을 들이마신다. 겨울과 함께 천연기념물 고니를 비롯한 철새들이 날아들고, 야생보호동물인 수달과 삵이 종종 출몰한다는 소

식도 들린다. 맑아진 강물 덕에 동물과 식물의 개체 수는 물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풍요로워졌다.

태화강지방정원을 지나 태화교를 향해 걷다 보면 고려 성종 임금이 잔치를 열었다는 태화루가 나타난다. 석양이 짙게 내리는 울산의 일몰 풍경은 이곳에서 감상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 삼각대와 망원렌즈를 든 사진가들은 일몰 시간에 맞춰 태화루로 향한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시민의 염원으로 재탄생한 태화루는 태화지방정원과 십리대숲, 태화교 등 태화강이 선사하는 풍경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다. 밤이 되면 누각을 은은하게 비추는 조명이 휘영청 밝은 도시의 달과 어우러진다. 한여름 여행자들이 바다가 아닌 강을 찾는 이유. 태화강 변을 산책한다면 알게 될 것이다.



여름 백로
5월에 찾아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다 10월에 떠나는 백로. 태화강에는 8,000여 마리가 머문다.



가을 국향
10월이 되면 태화강지방정원은 그윽한 향기를 내는 4,000만 송이의 국화로 뒤덮인다.



전통과 첨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태화루에서 북쪽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기 백 악기 시대의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보존한 공룡 발자국공원이 나온다. 육식 공룡인 마니랍토라의 발자국 3개와 초식 공룡인 고성룡의 발자국 77개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공원에는 암석 위에 새겨진 공룡 발자국과 함께 티라노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거대 공룡을 재현한 조형물이 있다. 공룡들이 10분 주기로 얼굴과 꼬리를 움직이며 소리를 낼 때면 들뜬 아이들이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중구에는 삼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성곽이 모여 있다. 1417년에 축성한 경상좌도 병영성은 둘레 약 1.2km, 높이 약 3.7km의 긴 타원형으로 늘어서 있다. 축조 당시에는 성문과 우물, 도량, 창고 등이 있었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이 병영성의 돌로 울산왜성을 쌓아 흔적만 남았다. 현재 약 1km의 성곽 둘레길을 복원했는데, 성벽에 오르면 울산 북쪽의 경치가 한눈에 보인다.

병영성 내에는 외솔기념관이 있다. 울산 출신의 외솔 최현배 선생은 평생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쓰며 “한글이 목숨”이라고 강조한 독립 운동가이자 국어학자였다. 일제가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여겨 회원들을 체포한 뒤 징역형에 처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검거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옥중 생활을 하기도 했다. 기념관에서는 한글의 변천 과정과 「큰사전」 편찬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선생의 유물 등을 볼 수 있다.

예술과 문화로 되살아난 원도심

도시가 커지고 새로운 도로와 건축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이동한다. 한때는 북적였던 중심가도 오래된 시간만을 간직한 채 ‘개발되어야 할 원도심’으로 퇴장한다. 많은 도시가 마치 숙명처럼 쓸쓸하게 변화를 기다리는 원도심을 품고 있다. 울산 중구의 성남동과 옥교동은 울산 시민들에게 그런 장소다. ‘원도심’으로 통칭하는 이 일대는 젊은이들이 빠져나

2 3
1

1 울산 수령이 공무를 집행했던 동현.
울산시 유형문화재로서 전통 재현 행사인
'울산 도호부사 행차'가 열린다.

2 고복수 음악살롱에는 민족향일기부터
1950년대까지 활약한 선생의 인생을 기록한
전시관과 당시 무대를 재현한 복고풍 카페가 있다.

3 중구 원도심에서는 전통행사를 계승한
'마두희 축제'를 비롯해 일년내내 문화 행사와
거리 공연, 축제가 벌어진다.



가고 추억만 쌓인 채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이 여행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봄 울산 중구 성남동에 1970~1980년대 거리가 조성되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재미를 주는 이 거리는 ‘맨발의 청춘길’이라는 테마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안에 꾸며졌다. 버스 안내양이 있는 옛날 버스와 빨간 공중 전화기, 추억의 문방구까지 나팔바지와 통기타 감성을 끄집어내는 ‘복고풍’ 거리가 반갑다. 정감 어린 골목길 공개는 뒷골목 정취가 남아 있는 원도심 ‘중구’ 이기에 가능했다. 음악과 영화, 패션을 테마로 한 맨발의 청춘길은 건물의 벽면 하나, 전봇대 하나에도 ‘복고’를 입혔다.

원도심의 변화는 성남동 ‘문화의 거리’에서 출발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울산큰애기’는 울산 중구를 상징하는 귀여운 캐릭터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양증맞은 빨간 핀을 머리에 꽂은 울산큰애기는 울산 중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으며 캐릭터 상품도 인기몰이 중이다. 중구 문화의 거리를 걸으면서 인심 좋은 반구동 처녀 울산큰애기를 만날 때

마다 자꾸만 정이 들어 끝내 조형물과 사진 한컷을 남기고야 만다. 문화의 거리는 개성 강한 카페와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채워졌다. 음식점부터 핸드메이드 제품 숍, 서점까지 한 건물에 있는 ‘울산큰애기하우스’는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단순히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액세서리나 생활 소품을 만들어 보는 등 체험과 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니 삼삼오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이 매력적인 공간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밖에도 1930년대를 풍미한 울산 출신 가수 고복수의 음악 인생을 볼 수 있는 고복수 음악살롱, 근대화의 흔적을 품은 뜻딱길 등이 문화의 거리에 묵직한 테마를 입혀준다. 주말이면 거리 공연이 벌어지고 계절마다 예술제와 축제가 열려 오래된 골목을 들썩이게 한다. 특히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중구는 ‘아틀리에 도시’라는 콘셉트로 지역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공방을 진행한다.

신석기에서 청동기에 걸쳐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에는 당시 사냥의 대상이 되었던 고래, 육지 동물 등의 그림 237점이 남아 있다.



1906년 동해안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울기등대(리전쟁 직후인 1906년 세워져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울기등대. 등대 주변의 기묘한 바위와 1만 5,000 그루의 해송이 절경을 이룬다.)



박복순 명인의 맑은술, 복순도가 막걸리 정상 회의나 대통령 만찬 자리의 공식 간배주에 선정되어 더욱 유명해진 복순도가 막걸리. 방문객은 막걸리를 시음하고 양조장을 둘러볼 수 있다.

수중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다이버의 모습을 보다 보면 바닷속 푸른빛과 고요함 속에서 휴식하는 자신을 상상하게 된다. 물론 그런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스쿠버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배워야 하지만 이제는 프리다이빙이라는 새로운 수중 레포츠의 보급으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해양 생태계를 보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글 이명국(면슬리 보홀 에디터) 일러스트 강태이



시원하게 풍덩,

프리다이빙



바닷속 자유를 만끽하는 레포츠

프리다이빙이란 단어 그대로 자유롭게 잠수한다는 의미로 호흡 장비의 도움 없이 무호흡으로 수중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스쿠버다이빙의 경우 공기통과 호흡, 부력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야 하지만 프리다이빙은 마스크와 스노클, 핀만 착용하고 자신의 호흡으로 잠수한다. 사실 잠수 장비가 있기 전부터 인간은 생계를 위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갔다. 우리의 해녀 또한 그러했고 전 세계에 비슷한 수중 채집 활동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후 체계화된 무호흡 잠수 기술을 적용해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자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생겨났다. 이제는 인간이 무호흡으로 수심 100m를 넘기지 못한다는 생각은 깨진지 오래되었고 현재 130m(기계를 이용한 무제한 방식은 214m)의 깊이와 길어진 무호흡 시간으로 새로운 기록이 간신히 있다. 잠수 방법에 따라 깊이와 시간을 측정하는 기록 종목인 프리다이빙을 바탕으로 개발한 입문 프로그램이 있어 누구나 적절한 호흡법과 압력 평형, 수중 기술을 익히다면 안전한 바다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프리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국내에는 이미 지역별로 많은 전문 강사와 교육 센터가 있다. 프리다이빙에 대한 이론 교육에 이어 수영장, 해양에서 수중 기술 교육을 마친다면 AIDA, SSI, PADI 등과 같은 국제 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을 소유하면 전 세계 프리다이빙 센터에서 연속 교육 및 트레이닝 과정을 연계해 밟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모든 수중 활동에서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바로 물에 대한 공포다. 발이 닿지 않는 수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마스크와 스노클, 슈트, 핀만 착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수중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다. 체험 프로그램에서 수중 환경과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적응을 끝내고 입문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면 훨씬 수월한 다이빙이 가능하다. 이후 체계화된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와 함께 점진적으로 잠수 시간과 함께 수심을 늘리면 기록 종목에도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빙 실력과 상관없이 '절대 혼자 다이빙하지 않는다'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준비하면 좋은 프리다이빙 장비



프리다이빙 마스크 & 스노클

강한 수압을 받아 압착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마스크와 스노클을 사용한다.



프리다이빙 슈트

물의 저항을 줄여주며 보온성과 신축성이 좋은 오픈 셀 형태의 슈트를 입는다.



프리다이빙 핀

제한된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70~80cm에 달하는 길이의 롱핀을 선택한다.



프리다이빙 웨이트 & 웨이트 벨트

'최종 호흡'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무나 실리콘 재질의 웨이트 벨트를 착용한다.



두려움을 넘어, 나를 만나는 시간

사실 프리다이빙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무호흡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는 입문 프로그램 통해 적절한 호흡법을 연습하면 된다. 어느새 수중에서 편안하게 유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수중에서 머무는 시간과 깊이는 호흡을 통한 긴장 완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ダイ빙 전 감정과 신체의 긴장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프리다이빙에서 호흡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ダイ빙의 시작과 끝이 자신의 호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프리다이빙을 위한 호흡에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매일 쉼 없이 호흡한다. 호흡을 통해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도 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함께 시작된 호흡을 이해하고 천천히 돌아보는 기회는 많지 않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과 신체의 긴장 상태가 반복되고 피로가 느껴진다. 이때 우리는 호흡 조차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확히 마주하지 못한다. 단지 한 숨만 길게 뱉거나 가슴 깊이 답답함을 느낄 뿐이다.

그래서 프리다이빙은 호흡을 통해 우리의 삶과 나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호흡에 따라 변화되는 마음과 신체를 이해하면 수중에서의 움직임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수중에서 나와 마주할수록 무호흡의 시간과 거리도 증가한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 끝없이 펼쳐진 수면에 엎드린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가다듬고 몸의 긴장을 풀며 천천히 숨을 고른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동안의 걱정과 긴장이 조금씩 흩어진다.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푸른빛에 숨겨진 물길에 내 의지로 잠수한다. 몸이 물에 잠기고 조금씩 핀을 저어 나가면 푸른빛이 나를 비춘다. 깊게 반짝이는 고요한 바닷속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춤을 춘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이지만 바다만큼 무한하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수중에서 얼마나 깊이, 오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자신에게 얼마만큼 집중하고 마주했는지에 따라 바다에서 평화를 찾고 위안을 얻는다. 무호흡에 대한 두려움이 도전이 되고 바닷속 내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렇게 프리다이빙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해양 세계를 여행하며 물길 속 나를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진다. 나를 받아 줬던 바다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연스럽게 줄이며 세상의 모든 존재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나를 보게 된다. 이처럼 프리다이빙은 단순히 수중 레포츠를 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과 연결될 것이다. 마치 모든 바다처럼.

6 Essential Places to Freedive

프리다이빙 센터는 보통 해양 환경이 좋은 필리핀 보홀, 인도네시아 길리, 태국 꼬따오, 이집트 다합 등에 있으며 개인 일정에 따라 국내외 센터를 비교 후 선택하면 된다. 특히 물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먼저 체험 프로그램으로 프리다이빙을 접하는 것을 추천한다.



Essential 1. 필리핀 보홀

필리핀 세부 남동쪽에 위치한 보홀의 팡라오섬은 뛰어난 수중 환경과 낭만적인 해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중 지형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가까운 바다에서도 깊은 수심의ダイ빙을 즐길 수 있다.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우리나라ダイバー가 많이 찾는다.



Essential 2. 인도네시아 길리

발리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열대 섬 길리는 맑고 투명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수온이 연중 29°C를 유지하고 수질이 깨끗해 시야를 확보하기 좋다. 넓은 산호 군락과 아름다운 열대어가 가득한 유명ダイ빙 포인트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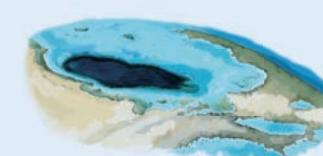
Essential 3. 태국 꼬따오

꼬따오는 종로구만 한 작은 섬이지만 깨끗한 바다에 해양생물이 다양해ダイバー의 성지로 불린다. 동남아시아ダイ빙 자격증의 절반이 이곳에서 발급된다고 할 정도다. 수온이 따뜻해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상어 등 위험한 어종이 많지 않은 것도 장점.



Essential 4. 이집트 다합

이집트 시나이반도의 작은 어촌인 다합은 홍해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스쿠버ダイ빙, 프리다이빙 센터가 있고 해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비치ダイ빙이 가능하다. 수심 90m의 블루홀이 있어 파도와 조류 없이 안전한 프리다이빙을 즐기기에 제격.



Essential 5. 벨리즈 그레이트 블루홀

짙푸른 색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벨리즈 그레이트 블루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폭 300m, 깊이 124m의 블루홀에서는 프랑스의 프리다이빙 챔피언 기욤 네리가 113m까지 잠수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Essential 6. 제주 우도

우도는 아열대 기후의 영향으로 연중 수온이 20°C를 유지해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프리다이빙을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다. 별집 모양의 현무암 바위에서 임수하면 화산 지대의 암초와 형형색색의 산호, 물고기떼가 어우러진 장관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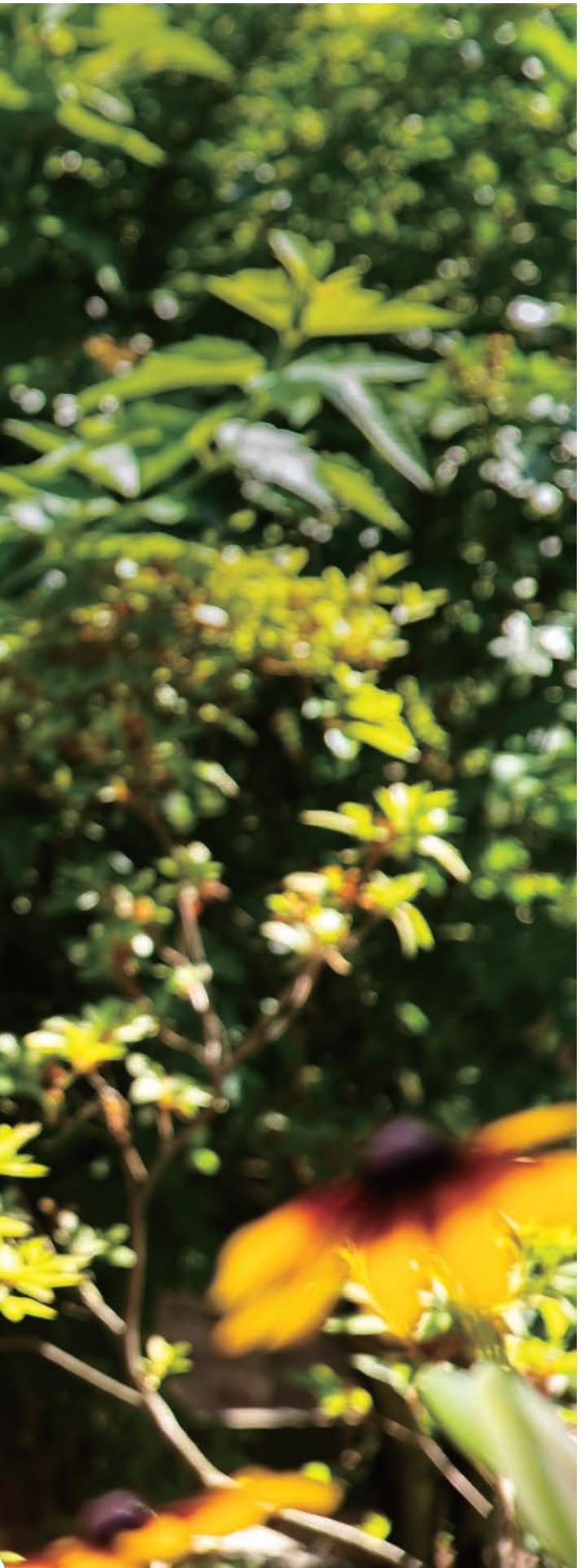


진실한 소리로의
끝없는 여정,

대명창 안숙선의

餘 暇 食 美

여 가 식 미



K-POP의 인기가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K-POP은 이름처럼 서구의 음악을 우리 식으로 엔터테인먼트화한 것이다. 그 이전에, 지금처럼 거센 흐름은 아니지만 일찍이 전통의 판소리를 서구에 옮겨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린 인물이 있다. 타고난 청아한 음색에 대중성까지 겸비해 시대의 명창으로 불리는 안숙선은 일흔이 된 지금도 진실한 소리를 향한 여정에 있다.

글 소효령 사진 김재이

‘쑥대머리’에서 쑥대란 쑥의 줄기를 말하니, 쑥대머리란 쑥과 같이 헉클 어져 어지럽게 된 머리 모양을 일컫는다. 생활에서는 좀처럼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지만 판소리 ‘춘향가’의 대목으로 유명하다. 춘향이 옥중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부른 이 대목을 포함한 춘향가는 안숙선 명창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소리다. 그것은 그가 춘향가의 배경이 된 남원에서 태어나 “춘향제” 제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부르는 춘향가에는 시대와 언어를 뛰어넘는 정서와 힘이 느껴진다.

“외국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관객이 소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춘향이 사랑에 빠져 부르는 노래와 슬픔과 한에 겨워 절절하게 내뱉는 소리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죠. 요즘은 무대에 번역된 가사를 전부 보여줘서 관객이 보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여덟 살 때 소리를 시작해 올해 일흔을 맞은 안숙선 명창은 1986년 스승 격인 박동진, 오정숙 명창의 뒤를 이어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완창했다. 1988년 유럽 8개국 공연을 시작으로 뉴욕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고,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과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초청 공연을 했다. 특히 1998년에는 ‘천상의 소리’라는 극찬과 함께 프랑스 문예공로훈장 오피시에를 받으며 우리의 소리를 알리는 동시에 세계적인 명창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일흔이라는 나이가 되니 기력이 달려 소리 하는 게 힘들어요. 스승들께서 “이제 소리를 알 만한데, 나는 먼저 가네”라고 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소리를 아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목을 아끼기 위해 속삭이듯 말하던 명창의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우리 소리를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창극과 판소리 공연을 이어 나갈 것이라 한다. 완성이라고 할 것 없는 소리를 향한 인생을 62년간 살았고, 지금도 그 여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명창 안숙선의 여가식미를 만나 본다.



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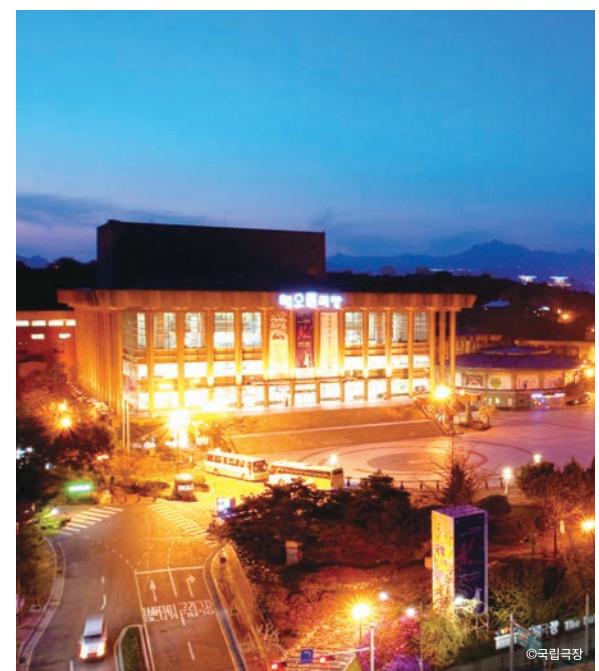
나를 깨닫는 시간, 남산 등산

유일한 취미가 등산입니다. 특히 남산은 제게 꼭 필요한 산 같아요. 국립극장을 40년 가까이 출퇴근하면서 자고 일어나 9시부터 창극과 판소리를 했어요.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소리를 할 수 있었지요. 눈앞이 막혀 있으면 나오던 소리도 안 나오는데,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며 어떤 때는 울면서 소리를 했어요. 산을 오르며 상인들이 구워 주는 밤을 먹는 것도 재미였지요.

暇

소리 인생의 무대, 국립극장

국립극장은 오늘날의 저를 있게 한, 제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에요. 국립극장 내에서도 제게 특별한 곳은 보일러실이에요. 의아하겠지만 이곳이 제 최고의 연습 공간이었거든요. 보일러실은 천장고가 나지막하고, 겨울에도 따뜻해서 소리 공부하기 딱 좋았어요. 어느 날은 보일러실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나 된 줄도 모른 거예요. 결국 밤늦게까지 소리를 하다가 나왔는데, 다음 날 사람들이 보일러실에 귀신이 산다고 오해하더라고요. 우리 소리는 악보로 잘 옮겨 놓아서 ‘으흐~’하고 슬픈 소리를 내면 오싹오싹할 정도거든요. 아무리 귀가 트였다는 국립극장 수위 아저씨라고 해도 놀라 자빠질 만하죠.



食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유년의 맛, 나물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밥에 무며, 상추며, 고추 같은 것을 키우셨어요. 집에서 직접 길러 낸 채소를 먹으며 자라서인지 지금도 고기보다는 채소를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처럼 시대가 풍족하지 못해서 매끼니 고기며, 두부 같은 것으로 영양을 다 섭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청국장이나 열무김치 같은 것으로 먹으며 보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익은 열무김치를 떠올리면 언제나 군침이 돌아요. 생각해 보면 같은 작물이라도 그때는 지금보다 맛과 향이 훨씬 풍부했던 듯 싶어요. 같은 쌀로 밥을 지어도 솔을 열면 고소한 밥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곤 했어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美

지혜와 채찍, 스승님의 편지

소리라는 게 대단히 엄격해요. 선생님들께서는 감사하게도 늘 저를 살펴보시고 소리가 어때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제 공연을 보시고 편지를 써 주셨어요. 그날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공연을 하다가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리고 지휘자와 농담을 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너를 잘한다 칭찬해도 한 사람이라도 저건 틀렸다고 지적한다면 그 말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따끔하게 나무라시는 편지를 읽으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슬프고 애달프고 그래요. 이런 게 제일의 애장품이지 싶네요.

도시의 어둠을 가르는 질주 본능,

〈다크 나이트 라이즈〉 캣우먼의 배트포드

조커의 음모를 막으려다 전투용 모빌 텁블러가 폭발할 위기에 처한 배트맨. 비상탈출 장치를 가동하자 “굿 바이”란 인사와 함께 새로운 모빌이 출동한다. 날렵한 디자인의 배트포드는 화려한 기동성을 뽐내며 배트맨의 목숨을 살린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 이르러 진정한 주인 캣우먼을 만난 이 블랙 바이크는 다시 한번 배트맨을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글 정재광

배트맨을 구해 낸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히로인 캣우먼

흔히 ‘배트맨 삼부작’이라 부르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다크 나이트 트릴로지〉는 21세기 슈퍼히어로 영화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친사를 받으며 현재까지도 역대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 시리즈로 꼽힌다. 명맥이 끊겼던 배트맨 시리즈를 부흥시킨 것은 물론, 어린이나 마니아 취향의 오락 영화에서 벗어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심오한 주제를 다루면서 하이로 영화의 새장을 열었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는 고담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번째 이야기로 명성에 걸맞은 장엄한 마무리를 선보이며 시리즈를 완성으로 이끈다.

사상 최강의 적 베인을 만나 고전하는 배트맨. 그를 구해 줄 ‘히어로의 히어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 ‘캣우먼’ 셀리나 카일(앤 해서웨이)이 배트포드와 함께 등장한다. 셀리나는 어릴 적부터 수시로 감옥을 드나든 악덕 범죄자다. 슬럼가에서 태어나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한 길이 그의 전과가 된 셈이다. 그녀는 탁월한 유연성과 센스를 뽐내며 아무도 열 수 없다는 브루스 웨인(크리스천 베일)의 금고를 열고, 배트맨이 조종법을 알려 주기도 전에 아무 문제 없이 배트포드 운전에 성공한다. 베인이 막아 놓은 터널을 부수기 위해 질주하는 캣우먼의 모습은 영화의 최고 명장면으로 꼽힌다. 무법 지대로 변한 도시를 누비며 달려간 셀리나는 배트포드의 유탄을 이용해 자동차들로 막힌 탈출구를 통쾌하게 뚫어 낸다. 이 지점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그대로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셀리나가 끝까지 믿음을 보여 준 배트맨의 모습을 떠올리며, 결국 정의의 방향으로 배트포드의 앞머리를 돌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후의 결전에서 패한 배트맨이 목숨을 잃기 직전 가까스로 도착한 캣우먼의 배트포드는 불을 뿐으며 위기에 놓인 배트맨을 구해 낸다. 비로소 고담시에 평화가깃드는 순간이다.

자신과 닮은 배트포드와 함께 순발력 넘치는 활약을 보인 캣우먼. 그녀는 스크린을 찾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단독 스플로프 영화 제작을 제안받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에서 달려 나온 어른들의 핫 토이 배트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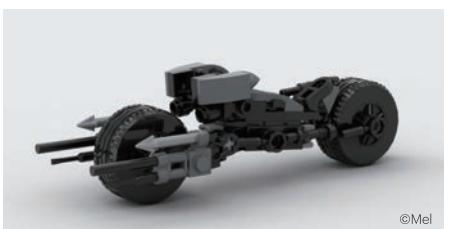
배트모빌은 코믹스와 영화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하며 배트맨 액션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팀 버튼의 영화에서는 검고 긴 개량 스포츠카 같은 이미지였다가 〈배트맨과 로빈〉에서는 ‘잭 오 랜턴’을 모티프로 한 오픈카 형식을 선보이기도 했다. 〈다크 나이트 트릴로지〉에 이르러서는 군용 교량장갑차를 개조한 텁블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탈출용으로 분리된 것이 배트포드다. 배트맨을 다른 기존 작품들이 자동차 형태의 배트모빌에 치중했기 때문일까?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트 사이클’ 배트포드는 넘치는 개성으로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는다.

이처럼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배트포드의 디자인은 디자이너 네이선 크롤리와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런이 맡았다. ‘리얼리티의 장인’ 놀런은 이번에도 실제 운전 가능한 기체를 제작하는 위엄을 보여 주었다. 앞쪽에는 몇 톤이나 되는 자동차도 끌 수 있는 갈고리 로프를 달았으며, ‘50 칼리버 자동소총’과 40mm 포 모형이 에지를 살려 준다. 모터는 750cc 혼다 엔진을 장착했는데 영화에는 테슬라의 멋진 엔진 소리를 가미했다.

세련된 디자인 중에서도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은 역시 앞뒤의 거대한 바퀴로, 그 폭만 20inch에 이른다. 핸들을 고정해 놓아 몸을 차체에 바짝 붙이고 무게중심을 실어서 방향을 조절해야 한다. 말 그대로 모터사이클과 하나가 되어 달리는 방식인 셈이다. 활영에 임한 배우들에 따르면 “한 마리 짐승을 타고 달리는 기분”이라고.

2016년에는 영화에 사용한 실물 그대로 경매에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그 낙찰가가 무려 40만 달러를 넘었다. 이런 건 브루스 웨인 정도 되어야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애석해할 우리를 위해 레고에서 300피스로 이루어진 VIP 한정판을 제작해 주었다. 물론 이마저도 한국에는 정식으로 발매하지 않아 구하기 어렵지만, 유사 부품을 활용하면 그 자태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6부터 1/43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배트포드 피겨가 성황리에 판매 중이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테이블 위를 달리며 어른들의 밤을 지켜 주고 있을 것이다.

+ 나만의 배트포드 만들기



©Mel

레고 배트포드 리미티드 에디션
(LEGO LIMITED EDITION BAT-POD)

레고에서는 2015년 배트포드 에디션 1,000개를 VIP 회원 한정으로 제작해 발매했다. 300피스 정도로 크기는 크지 않으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 영화 속 여성의 질주 본능

〈메드맥스: 분노의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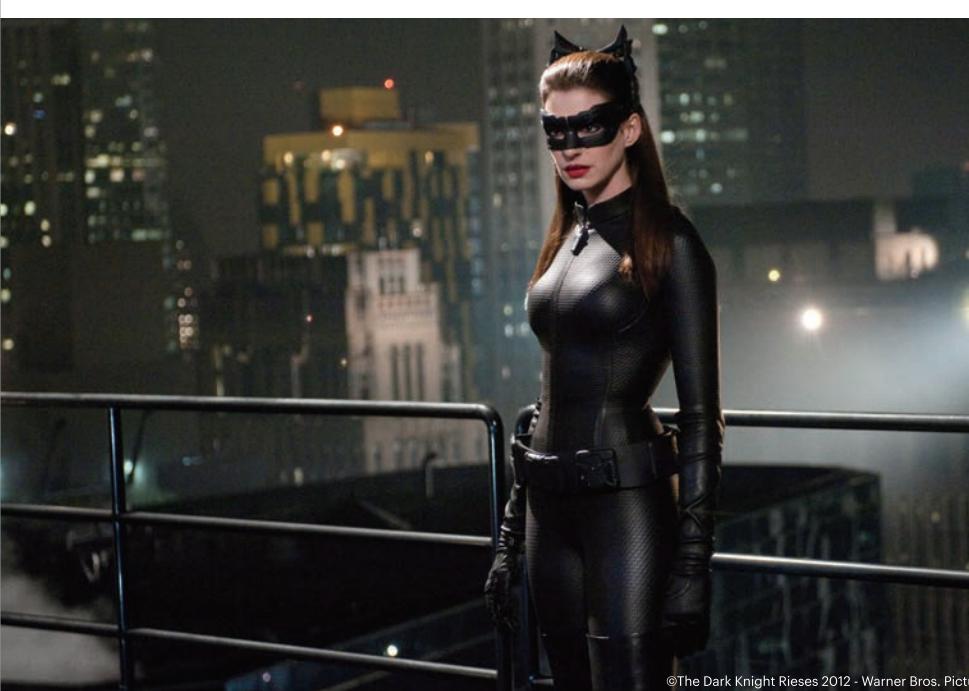
독재자 임모단 조의 지배 아래 희망 없는 미래를 맞고 있는 황폐한 도시 시타델. 전투 트럭 워 리그의 조종사이자 사령관인 퓨리오사는 자신과 동료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 이름대로 분노의 질주를 강행한다. “살고 싶어? 워든지 들고 뛰어!”

〈델마와 루이스〉

집 안에만 깊혀 지내던 델마와 그녀의 절친 루이스는 일탈을 기획하고 핸들을 잡는다. 소리를 지르며 도로를 질주하는 그녀들의 멋진 클래식 카 선더버드는 이후 그랜드캐니언 위로 날아오른다.

〈데쓰 프루프〉

죽음 방지 장치가 장착된 스턴트용 차량 ‘데쓰 프루프’를 이용해 여성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마이크. 그에게 위험을 당한 킴과 조가 1970년형 닷지 철린저 440 엔진을 타고 진정한 속도의 멋을 보여 준다.



©The Dark Knight Rises 2012 - Warner Bros. Pictures



©The Dark Knight Rises 2012 - Warner Bros. Pictures



©The Dark Knight Rises 2012 - Warner Bros. Pictures



과학이 만든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바람은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며 일어나는 현상이다. 날씨가 더울 때 부채질을 하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압 차이로 인해 공기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생기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조그만 기둥에 원형의 통이 달린 모습이다.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날개는 실제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터와 함께 기둥 모양의

스탠드에 숨어 있다. 스탠드 안을 보면 '비행기의 제트 엔진'을 연상시키는 팬(날개)과 모터가 탑재되어 있다. 제트 엔진의 원리를 이용해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람은 기존 선풍기 바람에 비해 부드럽다고 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만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ZERO9

"어떤 일이든 시작은 위험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프리드리히 니체

Aju & Style

아주, 더 높이

도전은 늘 두렵게 마련이지만 그 자체로 변화의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언제나 가치 있는 행보입니다. 남들이 안 가 본 길일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걸음을 내딛는 개척자정신으로 낯선 미국 땅에서 남다른 성과를 완성하고 있는 아주IB투자의 이야기는 1년의 절반 정도를 남겨둔 지금, 망설이느라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마음속 꿈을 펼쳐 볼 수 있도록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지만 내가 무조건 옳다고 믿어 온 가치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과감히 손을 놓고 면을 바라보며 철학적 질문을 던져 보세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아주 작은 의지로부터 일상의 혁신이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국내 최초를 넘어 글로벌 최고를 꿈꾼다, 아주IB투자

에어비앤비는 여행의 개념을 뒤바꿨고,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소멸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나의 어엿한 비즈니스로 자리 잡아 우리 삶과 만나게 된 걸까? 그 뒤에는 소규모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두루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사의 활약이 숨겨져 있다. 지금, 기술과 생활의 조합으로 삶의 본질적 속성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대, 벤처캐피털사가 발굴하는 기업의 가치가 곧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IB투자가 미국 진출을 감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 유재원 사진 김지원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조력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휴가 시즌 포근한 숙소와 흥미로운 액티비티 정보를 한눈에 모아 보고 싶을 때 이제는 누구나 야놀자 앱을 연다. 2015년 모텔 숙박 중개 서비스로 시작해 호텔과 펜션은 물론 먹거리, 쇼핑, 레저시설 예약까지 그 범위를 확장 '종합 여가 플랫폼'으로 진화한 야놀자는 숙박과 여가, 놀이 문화에 대한 편견과 흐름을 뒤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현재 이들은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글로벌 여가 플랫폼'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상태. 하지만 이러한 야놀자의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이들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고, 이들의 비전에 힘을 실어 준 벤처캐피털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야놀자라는 서비스

의 근본적 방향성을 지지하며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현실화,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이 야놀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야놀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이 재미난 서비스를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벤처캐피털사란 소규모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보유한 아이디어, 기술의 사업적 가치와 가능성을 두루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다. 이들은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시작, 그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금 소셜미디어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며 벤처캐피털사는 더욱더 중대한 임무를 띠게 된다. 앞으로의 기술, 산업은 이전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삶에 단순히 기술이 추가, 도입되는 수준을 넘어 기술과 생활이 조합되고, 그로 인해 삶의 본질적 속성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판도는 물론 우리 삶의 흐름 또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야놀자가 숙박에 대한 편견을 뒤엎고 여가의 개념을 확장시켰듯, 앞으로의 벤처캐피털사는 인간의 삶에 이로운 아이디어, 기술력을 지닌 가치 있는 유망 벤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이는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아주IB투자의 투자 철학



개척자정신
도전과 혁신의 마인드를
기본으로 한 개척자정신



전문성과 신뢰
아주IB투자 구성원들의
충분한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함께하는 성장
기업의 성장 지원 과정에서 투자자 및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동반 성장

개척자정신으로 일군 최초, 최고의 행보

1974년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캐피털사로 출발해 2008년 아주의 가족이 된 아주IB투자는 도전과 혁신으로 대표되는 아주의 창업 이념, 개척자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를 선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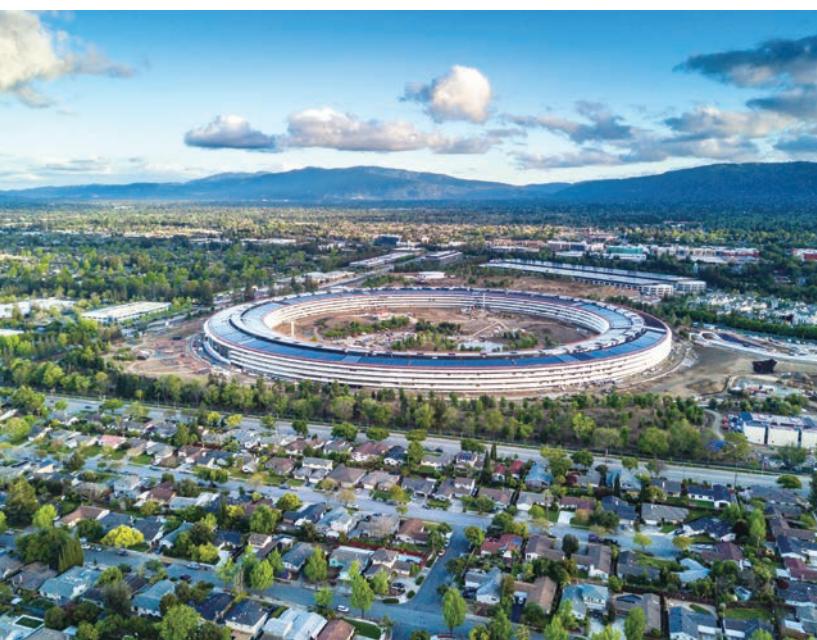
"아주의 창업정신인 개척자정신은 벤처캐피털 비즈니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마인드입니다. 개척자정신이란 말 그대로 안 가 본 길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의미잖아요? 벤처캐피털사가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벤처 정신을 가지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부분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보

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사 또한 과감한 도전 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하죠. 저희는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혁신의 정신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와 아주IB투자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벤처캐피털사가 되고자 합니다."

김지원 대표의 말처럼 아주IB투자는 늘 '최초'의 행보를 멈추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혁신적 결과들을 도출해 왔다. 그리고 아주IB투자만의 굳건한 도전 정신은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다. 최근 10년 동안 국내 벤처캐피털사의 해외 투자는 2009년 434억에서 2018년 3,195억으로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로부터 탈피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려는 업계 전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새롭게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IB투자의 결정은 달랐다. 과감히 미국 시장을 행선지로 선택한 것. 아무도 간 적 없는 길이었지만 아주IB투자가 미국, 그중에서도 보스턴으로 가야만 하는 근거는 뚜렷했다.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투자자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IB투



자는 금융, 자본시장, 증권 제도가 안전하게 구축된 미국을 진출지로 삼았습니다. 중국은 급부상하는 시장이긴 했지만 아직 안전성을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죠. 미국 중에서도 보스턴으로 진출한 이유 또한 명확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속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이지요.”

아주IB투자가 미국 사무소를 개설한 보스턴은 미국 내 바이오, 헬스케어 클러스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하버드, MIT 등 명문 대학과 대형 병원이 단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곳. 자연스레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로슈, 화이자, 머크 등 글로벌 Top-tier 제약사들이 입주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다. 아주IB투자는 약 2년간의 치열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2013년 미국 진출을 감행해 해외 투자 펀드 1~3호 개설에 성공했으며 각종 어려움을 해결해 가며 2018년 말 기준 16개 기업, 654억 투자라는 성과를 냈다. 이를 기

반으로 현재는 최신 바이오테크 산업의 현장과 국내 시장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어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다.

투자의 기본은 사람 그리고 신뢰

투자 용어나 과정을 살펴보면 어렵거나 복잡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IB투자가 투자 과정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명확하다. 첫째는 사람에 의한 신뢰를 바탕에 둔다는 것이고, 둘째는 회사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즉 앞서 살펴본 국내 최고라는 타이틀, 보스턴에서의 성과 뒤에는 늘 사람, 아주IB투자의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지금 산업의 트렌드는 급속도로 변화합니다. 우버, 에어비앤비라는 공유경제와 아마존이라는 커머스 등 전통적 가치관을 전복하는 비즈니스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렌트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

깝습니다. 투자심사역들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꾸준히 적응을 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지요. 이를 위해 아주IB투자는 내부의 역량 있는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스로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일을 이어 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마주했을 때 그에도 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은 자기 발전과 업에서의 성취를 동일시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저희 구성원들이 매번 자발적 성장이라는 열정을 통해 증명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기본 가치를 두는 아주IB투자는 투자 기업과도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단순한 재무 컨설팅을 넘어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파트로의 확장을 함께 도모한다. 보스턴 진출 당시에도 아주IB투자는 시간이 조

금 더 걸리더라도 그곳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현지 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힘썼다. 동시에 2018년부터 지역전문가 과정을 펼쳐해 국내 직원을 미국 보스턴 사무소에 6개월씩 파견함으로써 현지 직원들의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 전략은 언뜻 간단해 보일 법도 하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다. 첫째는 아주IB투자가 보스턴이라는 지역 기반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 인력들이 해외 노하우를 배워 옴으로써 그것을 아주IB투자라는 회사 나아가 한국의 자산으로 남길 수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새로운 시너지의 가능성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리콘밸리, 멈추지 않는 도전

“현재 아주IB투자는 실리콘밸리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초고속통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는 무

수한 기술 영역이 존재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이 총집합해 있는 실리콘밸리로 직접 가 또 하나의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술 및 기업의 글로벌 성장 루트를 우리 손으로 개척해 보고자 합니다.”

개척자정신으로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사람과 관계라는 신뢰의 구조를 구축하며 투자의 리스크를 색다른 시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아주IB투자는 보스턴에 이어 실리콘밸리로의 진출을 암시 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 여정의 뿌리에는 아주IB투자라는 이름을 믿고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기술을 유치해 주기를, 그를 통해 한국 기술 시장이 성장을 이루어 점점 더 좋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기업들이 다채롭게 등장해 주기를,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아주IB투자의 이름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일관됩니다. 바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한국에서 가장 잘하는 벤처캐피털사가 되는 것이죠. 나아가 해외 무대에서도 아주IB투자라는 이름만 말해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투자 회사라는 평가를 받도록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을 꿈꾸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을 꿈꾸는 것으로부터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IB투자는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초기 투자 구상, 바이아웃 M&A, 해외투자라는 세 개 섹터를 동시에 지닌 비즈니스 구조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우수한 투자심사역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여전히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 줄까? 그리고 그 활약은 국내 시장에,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아직 명확히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최고를 꿈꾼다는 것은 최초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 말이다.

1

2013년 보스턴 사무소 진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 중심 투자 시작



해외투자펀드 1, 2, 3호 결성 및 투자

-정책 기관 없이 일반 기업, 공제회, 금융사 등

민간 출자자 중심의 펀드 구성

-해외 투자 비중 제한이 없어 100% 해외 투자 가능



3

2019년 실리콘밸리 진출

-4차 산업 중심 투자 예정



글로벌 벤처캐피털사로 도약

-미국 동부와 서부를 아우르는 동시에

국내 기업과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아주IB투자 미국 법인으로 자리매김



기존의 혁신을 혁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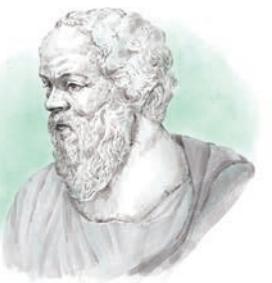
AJU Fundamental Course

대부분의 사람이 습관처럼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 그러나 정작 왜 변화해야 하는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창업 이념인 개척자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강조해 온 아주가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AFC(AJU Fundamental Course)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주의 진정한 도전과 변화는 구성원 개개인의 진실된 혁신 의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 구성원 개개인의 삶으로 다가가 혁신의 필요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아주. 그 뜨거운 시간들을 통해 발견해 낸 둥글한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자.

글 유재원 사진 김현상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나는 지혜로울 수 있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얇의 시작이기
때문이네.”

소크라테스

기업, 생존하기 위해 혁신하라 그리고 철학하라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 ‘혁신’은 기업 그리고 경영학계의 주요한 키워드였다. 시장, 산업별로 경계가 분명하고 환경이 안정적이며 변화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20세기의 기업 환경과 달리 21세기 기업이 놓이게 된 환경은 무경계성, 역동성, 불확실성이 특징인 전역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모델과 가치를 그때그때 창조해야만 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은 선택, 집중, 효율성 극대화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20세기적 사고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많은 국내외 기업이 혁신 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 또한 생존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에 휩쓸리듯 진행되는 변화를 진정한 혁신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기업은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철학을 우선 확립해야 한다.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쉽사리 흔들리지 않게 묵직한 중심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철학이 있는 기업이란 일관된 문화나 핵심 가치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로지 자신의 분야에 집중하며 자신의 역사로부터 미래를 그려 나가는 한편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본연의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으며 그를 기준으로 그 기업다운 문제 해결 방안을 창조해 내는 곳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라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물고 늘어져야만 한다.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과 끊임없이 기업의 철학을 공유해 갈 것인가, 어떻게 모

든 구성원이 기업의 철학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확립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실천을 기반으로 기업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아주가 1년을 꽉 채운 치열한 준비 과정을 거쳐 아주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가치인 ‘창업이념(개척자정신=변화와 도전)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AFC(AJU Fundamental Course)를 도입한 이유다.

혁신에 대한 혁신, AFC

아주는 창업 이념인 ‘개척자정신’에서부터 도전과 혁신의 마인드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최고의 품질을 위한 ‘6시그마 운동’, 수평적 소통을 위한 ‘직급 파괴’ 등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 왔으며, 아주만의 일하는 방식인 ‘ANT 경영’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적극적 실천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과 더불어 비서실 커뮤니케이션 팀은 소크라테스의 사유로부터 힌트를 얻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가 아닌, ‘왜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언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네. 바로 이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네.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얕의 시작이기 때문이네.”

“너 자신을 알라”,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는 늘 ‘무지에의 자각’을 강조했다. 혁신, 즉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는 결국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나야가 자신이 무언가에 대해 안다고 확신했던 것이 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 무엇보다 그 의심을 통해 확인하게 된 무지의 공백을 지속적으로 다시 새로운 앎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가능성을 획득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에는 특정한 방법론이나 툴이 아닌, 개인 그리고 조직의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 무엇보다 기존의 앎을 새로운 앎으로 뒤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혁신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동력이라는 사유가 밀받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주는 '혁신에 대한 변화, 혁신에 대한 혁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간 이어 온 아주의 혁신 활동을 진정한 기업의 철학 차원으로 공유하려면 구성원 개개인이 "우리는 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 결과 AFC는 아주인 모두가 아주만의 변하지 않는 철학인 혁신(개척자정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그를 자기 개인의 삶으로 끌어들여 재정의하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기획되었다.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일과 삶에서의 변화, 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아주의 철학인 혁신의 마인드를 훨씬 더 단단하게 다져 갈 수 있는 길고 멀지만 가장 정확한 접근법이 되어 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자유롭게 사유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철학적 사고를 통해 변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끌고자 노력한 점에서 기존 교육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닌 '나'에게도 진정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는 느낌을 받아 뜻깊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과정입니다." (2018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자 후기)

AFC는 2018년 두 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영과 혁신

에 관한 직접적 콘텐츠가 아닌 철학적 접근법을 통해 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그리고 그 결과 참여 아주인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이에 힘입어 2019년 비서실 커뮤니케이션팀은 AFC를 아주인의 기업 문화 정규 및 필수 과정으로 채택하고 4, 6, 8, 10월 총 4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정규 과정이 된 AFC는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혁신을 시작하게 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철학 교육이 하나,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자세를 배우는 마인드 셋업이 다른 하나다. 철학 교육의 경우, 전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철 교수와 함께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답을 찾는 법이 아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공유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나라는 개인의 삶과 아주의 지향점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는 힘을 기울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았다.

"철학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답을 구하기 위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답이 없는 질문이 더 많습니다. 철학자와 리더는 멈추지 않는 질문을 통해 성장합니다. 꼭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최선의 답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사실 이런 철학적 접근법은 자칫 선문답과 같이 행동력을 결여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런 한계는 마인드 셋업이라는 실천적 단계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했다. 앞선 단계에서 아주의 철학을 개인 삶의 목표와 연관 지어 사고하고 이해, 공감하는 데 성공했다면 마인드 셋업에서는 정신의학전문의, 심리학자 등 인간의 내면과 관련한 문제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또한, 일상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 혁신의 흐름을 스트레스가 아닌 긍정적 에너지로 수용하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팁을 습득했다. 언뜻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자신 내면의 바람을 신체를 통한 구체적 삶의 태도, 실천의 방법론으로 연결해 낸다는 발상이 유용했다는 후기들이 잇따랐다.



작은 불씨가 모여서 만드는 혁신의 미래

아주 문규영 회장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아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AFC에 참여한 아주인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 말에는 아주인 개개인의 의지가 결국 아주라는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AFC의 중심 기조가 깔려 있다. 그리고 AFC에 참여한 아주인들은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아주를 환히 밝힐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 그 희망의 불씨를 확인했다.

"이번 AFC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어울려 대화하며 아주에 이런 사람이 가득 있다면 우리 조직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기업 문화에 긍정적이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운 동료들이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히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열한 고민이 모여 아주를 환하게 밝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019년 6월 AFC 참가자 후기)

온전히 각자의 내면에 집중하며, 아주의 혁신 철학을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사유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한 AFC. 일방적, 수동적,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회사의 철학을 개인의 삶과 연관 지으며 내면의 힘을 길러 보는 과정이 선사한 깊이와 감동은 그 자체로 아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되어 아주인 모두의 내면에 혁신을 향한 뜨거운 지향점을 마련했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긴박한 시류 속에서 조급하게 트렌드를 따르기보다 혼들리지 않는 아주만의 중심 철학을 더 단단히 다져 가기로 결심한 아주. 물론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선택해 걸음을 내딛는 개척자의 마음에 그를 지지하며 따르는 아주인들의 진실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마침내 모두의 혁신이 완성될 것이다.

[한눈에 보는 AFC]

AJU Fundamental Course

아주인이라면 '창업 이념
(개척자정신=변화와 도전)'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 철학 과정

개척자정신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아주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기본 가치에 대한 이해와 수용

변화와 혁신

아주의 철학을 협업과 삶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돋는 실천적 과정

혁신의 시작, 철학적 사고

고대 철학과 질문의 방법을 통해
아주의 기업 철학과
자신의 일 그리고 삶의
접점을 모색

혁신의 실천, 마인드 셋업

업무와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문가 티칭, 스트레칭, 요가 등
혁신을 위한 구체적 실천

AJU NEWS

『아주좋은날』 2019 SUMMER

Volume 53 아주 뉴스

www.aju.co.kr



[아주] 끝나지 않는 개척자정신, 최고경영자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현지 법인 방문

아주 문규영 회장과 아주산업 경영진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13일간, 아주만의 성장 속도를 보여 준 아주미얀마, 우리의 세 철학인 개척자정신으로 일구어 낸 해외 법인 현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아주가 지난 10년 동안 뜨겁게 일구어낸 글로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글로벌 아주의 현주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현지 직원들과 변화 그리고 혁신을 향한 의지를 굳게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2017년 이후 2년 만에 해외 현장 방문에 동행한 문 회장은 어느덧 입사 10년을 바라보는 현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로 남다른 정성으로 준비하며, 이들과 함께 아주의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고자 애썼다.

“아주는 아시아의 주인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 그 입지를 확장해 갈 것입니다. 그를 훌륭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2008년 아주의 개척자정신을 품고 탄생한 아주베트남, 2011년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

을 증명해 준 아주캄보디아, 2018년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여 준 아주미얀마, 우리의 세 철학인 개척자정신으로 일구어 낸 해외 법인입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곧 아주의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는 개척자정신으로 아시아 최고, 글로벌 최고를 향해 갑시다.”

이처럼 남다른 애정이 담긴 문 회장의 응

원에 현장 근로자들 역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뜨겁게 화답했다. 특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베트남에서 일했다는 기획팀 팀长江永英 Tran Thi Ngoc Anh 팀장은 아주베트남 직원들을 대표해 아주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전했다.

“아주베트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음은 물론,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주 가족이 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

식을 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모두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할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 또한 변화, 혁신의 DNA를 공유하는 아주인들답게 역동적인 변화로 가득한 현지 환경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대응 전략을 그때그때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더불어 이번 해외 방문의 또 다른 성과는 앞으로의 글로벌 진출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각국의 시장 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관계사, 인력들과 미팅을 도모하며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다채롭게 모색해 보았다는 점이다. 문 회장은 이와 같은 구체적 노력이야말로 경영진이 현지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척자가 되어 글로벌 아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



[아주오토리움] 볼보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볼보자동차 풀숍 문래서비스센터

아주오토리움은 볼보차 자체의 품질은 물론 볼보차에 대한 서비스 수준까지 늘 ‘최고’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최고의 설비, 최고의 기술,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맞이하는 공간, 문래서비스센터를 성공리에 오픈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래서비스센터는 일반 정비 9개, 판금 정비 4개,

도장 4개의 워크베이를 갖춘, 자동차 전 영역의 정비가 가능한 ‘풀숍’이다. 일일 최대 36대의 정비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설에 대해 정비 기술자와 고객의 일대일 매칭을 원칙으로 예약, 상담, 점검, 정비까지 전 부문 개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볼보만의 차별화된 개인 전담 서비스, VPS(Volvo Personal

Service)까지 도입해 남다른 고객 소통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뿐인가? 인근에 위치한 목동 전시장과 함께, 고객 상담 및 판매, 사후 케어로 이어지는 연계 서비스까지 깐깐하게 고려하며 볼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고자 했다.

“볼보의 철학은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래서비스센터 또한 마찬가지죠. 아주오토리움의 유능한 정비 인력들은 VPS는 물론 스웨덴 볼보 본사의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며 최고의 정비,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픈 4개월 차를 맞이하는 문래서비스센터 서일선 지점장은 볼보의 안전 중심 철학을 거듭 강조하며 문래서비스센터가 수도권 최대 규모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볼보 서비스센터로 도약할 계획임을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 (문래동5가 5-6)

● 02-6964-7266

● 평일 09:00~18:00 / 토요일 09:00~12:00



[아주복지재단] 여전한 감동, 확 달라진 디테일, 2019 제21회 아주 특별한 여행

중증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쉼과 희망을 선사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아주의 장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만큼 이미 그 콘텐츠가 탄탄히 갖춰진 아주 특별한 여행이지만, 올해는 더더욱 전년도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어머니들 입장에서 최고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한 올해의 특별한 동행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어머니 30분을 초대했다.

2019 아주 특별한 여행은 어머니들 간의 교류 시간 비중을 넉넉히 확보하고자 노력했

다. 아주복지재단은 여행 일정에 아예 대화 시간을 따로 배정해 어머니들끼리 자녀를 앙우하며 느끼는 고민과 어려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끊임이 없었던 대화 끝에 어머니들은 혼자만의 고민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나눈 시간이 여행지의 기념사진만큼 특별한 추억과 에너지가 되었다는 후기로 아주복지재단의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이번 아주 특별한 여행은 메밀꽃과 라벤더가 아름다운 보름왓, 나룻배를 타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쇠소깍, 제주의 마스코트 돌하르방이 반겨 주는 금능석물원 등 색다른 여행지를 풍부하게 추가해 매일 자녀와 함께 고군분투하던 어머니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이에 더해 매일의 일정에 ‘세계 7대 유산 투어’, ‘제주 남부 지역 100배 즐기기’, ‘제주 북부 지역에서 즐기는 최고의 휴식’과 같은 테마를 추가해 어머니들에게 한층 더 제대로 된 여행을 누리는 기쁨과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했다.



[아주산업 해외 진출 히스토리]

- 2008, 아주베트남
업계 최초로 호찌민에
콘크리트 파일 공장 설립
- 2011, 아주캄보디아
프놈펜시 일원에
사각·원형 전신주 공장 설립
- 2018, 아주미얀마
미얀마 경제특구 지역에
콘크리트 파일 공장 설립
- 2020, 아주캄보디아
2019 칸달주 폰헤아 르 지구에
신규 공장 착공 후 기존 공장 이전,
콘크리트 파일 및 전신주 공장으로
확장 운영 계획

AJU MYANMAR AJU CAMBODIA AJU VIETNAM KOREA

[아주산업] 또 한 번의 시작, 캄보디아 콘크리트 파일 및 전신주 신규 공장 착공식

“아주의 사명에는 ‘아시아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08년 베트남, 2011년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개관했던 사각·원형 전신주 공장(연간 5만 6,000t 규모)을 이전, 콘크리트 파일 및 전신주 생산을 2020년 완공될 캄보디아 칸달Kandal주의 생산 공장은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콘크리트 파일 생산의 최전선 기지가 되어 아주가 아시아의 주인, 나아가 글로벌 시장의 주인으로 우뚝 서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지난 6월 17일 캄보디아 칸달주 폰헤아 르Ponhea Leu 지구에서 열린 아주 캄보디아 콘크리트 파일 및 전신주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해외사업본부 김교준 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산업이 추구해 갈 포부를 밝혔다.

이번 공장의 2020년 완공과 동시에 아주산업은 2011년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개관했던 사각·원형 전신주 공장(연간 5만 6,000t 규모)을 이전, 콘크리트 파일 및 전신주 생산을 2020년 완공될 캄보디아 칸달Kandal주의 생산 공장은 동남아 전체를 아우르는 콘크리트 파일 및 전신주 생산을 시작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아주산업의 콘크리트 파일은 2008년 업계 최초로 베트남 호찌민에 설립한 25만t 규모의 생산 공장, 2018년 미얀마에 문을 연 20만t 규모의 공장을 거점 삼아 글로벌 무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므로 곧 도래할 2020년, 동남아시아의 세 번째 콘크리트 파일 생산 기지가 될 캄보디아 공장이 문을 열면 아주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콘크리트 파일 시장을 선도해 갈 것이다.



[아주호텔앤리조트] 새로운 시선을 갖는 또 하나의 방법, 아주 인사이트 포럼

새로운 영감은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우리에게 인문학적 자극이나 전문가의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다. ‘아주 인사이트 포럼’은 아주호텔 앤리조트가 외부 전문가나 사내 직원의 강의를 통해 일상 속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 보고자 기획한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외부 강의의 경우 1년에 2회, 사내 강의는 분기에 1회씩 진행하며 관심 있는 아주인 누구에게나 활짝 개방

되어 있다. 지난 5월 3일 아주호텔앤리조트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5층에서 진행한 첫 번째 포럼에 흥의대학교 건축대학 유현준 교수를 연사로 초대했다. 유 교수는 ‘어디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사람과 사람을 소통 가능하게 만드는 건축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참가 아주인들과 90분간 친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도시의 주거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 보았다.



[아주네트웍스] 모두의 쾌거, ‘2018/19 RETAILER OF THE YEAR’ 총 3개 부문 7개 상 수상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는 매년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리테일러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 및 네트워크 개발 분야의 성과를 독려하는 RETAILER OF THE YEAR(이하 ROTY)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 5월 14일 서울 시그니엘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19 ROTY’에서 아주네트웍스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세일즈, 서비스 총 3개 부문에서 7개 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17/18 ROTY’에서 3개 상을 받은 데

비해 2배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아주네트웍스 전 임직원이 치열하게 소통하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수상의 주인공인 정지훈 본부장, 신주환 팀장(2개 상 수상), 윤현선 마스터, 최연수 마스터, 전종현 매니저, 손건희 매니저는 이 기쁨을 아주네트웍스 전 임직원과 기꺼이 나누며, 이번 수상이 아주네트웍스 모두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주산업] 베트남을 가로질러 아시아의 품으로, 콘크리트 파일 업체 민득과 MOU 체결



2008년 국내 레미콘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해 호찌민에 25만t 규모의 콘크리트 파일 및 전신주 생산 공장을 세운 아주베트남이 하노이의 리딩 콘크리트 업체 민득Minh

Duc과 MOU를 체결했다. 이는 미얀마 및 캄보디아의 전신주, 파일 공장과 더불어 아세안 시너지를 만들어 낼 콘크리트 거점의 주요 기지로서, 베트남 시장의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확보하려는 아주베트남의 행보.

이번 MOU 체결로 베트남 남쪽에 위치한 아주베트남과 북쪽에 자리한 민득은 두 회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서로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력 및 노하우 공유, 베트남 내부에서의 상호 보완 활동, 아세안 국가 진출을 위한 적극적 협력 활동 등. 두 회사는 서로의 기술력을 성장 동력 삼아 베트남, 아세안, 아시아, 글로벌 시장으로 활동 무대를 넓힘으로써 세계 고객의 일상에 동행할 예정이다.



[아주] 아주의 대표 메세나 활동,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후원 활동을 펼쳐 온 아주. 지난 7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서울을 대표하는 클래식 행사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 공식 협찬사로 함께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귀로 맛보는 ‘음악과 미식 Music & Gastronomy’이라는 맛깔나는 주제를 다양한 선율로 펼쳐 보이며 서울 시민들의 따뜻한 봄날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 넣었다.

[아주복지재단] 아주 행복한 꿈찾기 꿈과 꿈의 MOU



‘아주 행복한 꿈찾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아이들의 꿈 찾기를 응원해 온 아주가 지난 4월 19일 서초구 방배행복한꿈터가 진행하는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I CAN’ 프로젝트와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I CAN’ 프로젝트에는 총 9개 기관이 참여하게 될 예정. 다양한 지역 기관과 연계해 더 많은 아이의 꿈 찾기 멘토로 나선 아주복지재단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SPECIAL GIFT

「아주좋은날」2019 여름호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ajupr@aju.co.kr로
보내 주세요. 선정되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문화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 여유와 휴식이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면, 그만큼의 휴식을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유가 생긴다면 카페에서 차 한 잔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 주신 네 분을 선정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2. 오늘과 다른 내일, 생활에 활력을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즐거운 노래를 듣거나 마음에 담아 두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에는 생기가 돌죠. 독자 후기를 보내 주신 네 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애플트리태일즈 도서

3.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 곳곳에서 벌어졌던 인간의 삶과 식물에 얹힌 놀라운 이야기,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컬러링 이미지, 소리로 사람을 웃고 울리는 명창들의 숨겨진 이야기,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복돋아 줄 기술 등을 담은 애플트리태일즈의 도서를 독자 후기를 보내 주신 네 분을 선정해 선물로 드립니다.

Reader's Story

이번 「아주좋은날」에도 시야를 넓혀 주는 칼럼이 가득하네요!

특히 「협업의 시대, 모두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공감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1700년경의 선인들조차

“요즘 애들은 베릇이 없다”며 투덜거렸더니요!

역시 세대 차이는 영원한 난제인가 봅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생 협력의 첫걸음, 협업!

저부터 노력해서 이 협업을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닌

즐겁고 창조적인 여정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아주좋은날」, 늘, 항상 응원합니다.

— 송국화 님

봄빛을 닦은 「아주좋은날」!

이번 호 기사도 모두 희망차고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가장 여운이 남는 칼럼은 ‘새로 발견한 태국의 매력 치앙라이’였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국인의 삶과 문화,

동네마다 깃든 운치와 낭만이 다음 휴가를

꼭 치앙라이로 떠나고 싶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주좋은날」 덕분에 갑자기 여행 온 듯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삶의 향기 가득한 기사를 많이많이 실어 주세요.

— 정상호 님

